

A Daily Bread

날짜: 5785 년 시반월 15 일 (2025 년 6 월 11 일)

토라 부문: 베할로테하 (Be'halotecha)

주제: 본래의 의도

민수기 10:2 에는 “너는 은 나팔 둘을 만들어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미드라시는 이 구절과 관련된 시편의 말씀에서 이 내용을 해석한다. 시편 24:7 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입구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솔로몬 왕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가져올 때 이렇게 외쳤는데, 이는 성전의 문들이 너무 낮아 궤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슈나 미도트 2:3 에 따르면 성전의 입구는 높이가 20 암마였다고 한다. 이는 궤의 높이보다 여섯 배 높은 수치로, 궤와 그 위의 그룹을 포함해도 총 높이는 20 테파힘에 불과했다 (수카 5b 참조). 그러나 본 미드라시는 문지방이 땅 쪽으로 내려와서 입구의 실제 높이가 20 테파힘보다 낮아졌다고 전제한다. 이에 솔로몬은 성전 입구들과 대화를 시작하며, 궤가 성소 안의 제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를 들어 올릴 것을 간청한다.

그래서 솔로몬은 외쳤다: “영원한 입구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런데 성전의 문들은 솔로몬이 자신을 “영광의 왕”이라 칭한다고 오해하고, “이 영광의 왕이 누구냐?”(시 24:8)라고 반문한다. 즉, “당신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이에 문들이 그를 향해 떨어져 그의 머리를 으깨려 하였고, 솔로몬은 즉시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라고 외쳐야 했다.

미드라시는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다.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의 문들과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고, 문들이 실제로 반응한 것도 아니다. 그는 하느님께 기도하고 있었고, 그 기도 내용을 문들에게 말하듯 표현한 것이다. 이를 들은 사람들 중 일부가 오해하여 반응한 것이다. 비록 하느님께서 솔로몬이 자신을 영광의 왕이라 말한 것이 아님을 알고 계셨지만, 백성들은 그가 그렇게 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그는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처음부터 “영광의 왕”이 하느님을 지칭하는 것임을 의도했다면, 어째서 문들이 그 의도를 오해했을까? 그리고 하느님은 왜 “영광의 왕”이라 불리는가? 인간의 왕들은 자신의 왕권을 철저히 보호하지만, 하느님은 자신의 왕권을 다른 이들과 공유하신다: 하느님의 보좌, 흠, 관, 말, 의복, 그리고 이름까지도.

표면적으로는 인간의 왕들이야말로 영광의 주인처럼 보인다. 그러나 스파스 에메스(Sfas Emes)는 이와 반대의 관점을 설명한다. 인간의 왕은 결코 영광의 주인이 아니다. 그의 영광은 백성들에게 의존하고 있으며, 백성이 그 영광을 거두어 가면 그 영광도 함께 사라진다. 그리하여 인간의 왕은 자신의 영광을 잃는 것을 두려워하며, 타인이 자신의 권위에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

A Daily Bread

하지만 엘로힘은 참된 영광의 주인이시다. 그분의 영광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으며, 그분의 왕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하느님께서서는 자신의 영광의 일부를 누구에게든 나누어주실 수 있으며, 이것이 결코 그분의 지고한 왕권을 손상시키지 않는다.

솔로몬 왕이 엘로힘을 “영광의 왕”이라 부른 것은 바로 이 점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유대력 새해의 두려움의 날들(욘 하디님) 동안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에서 이 가르침을 되새긴다: “왕들을 관을 씌우시는 이는 그분이시며, 왕권은 그분의 것이다.” 하느님께서 다른 이들에게 왕권을 freely 부여하신다는 사실은, 오히려 진정한 왕권이 오직 그분께 속해 있음을 가장 잘 드러내는 증거이다.

샬롬.